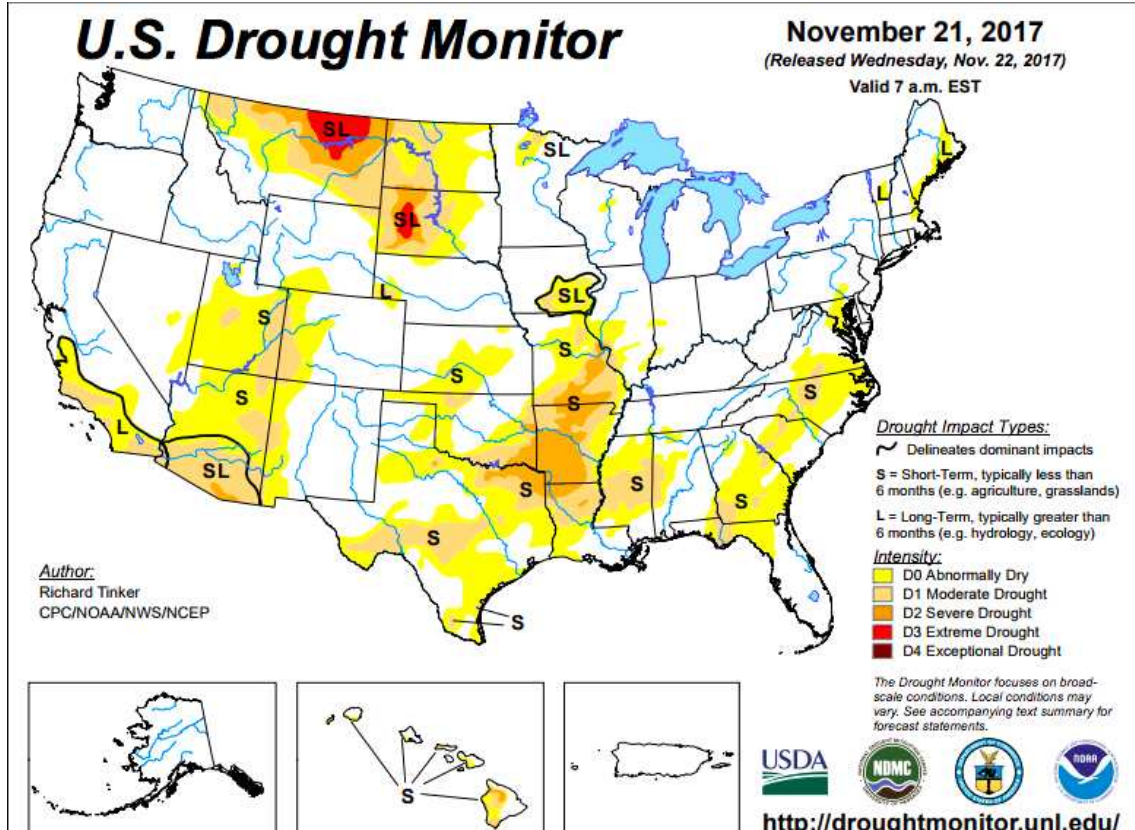


11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8)

□ 미국 기후 현황(11/19~11/25)

대서양 연안 지역과 오대호 인근 지역,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는 지난 한 주간 남서부, 중부, 남동부 등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늦가을 농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대두, 옥수수의 수확작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라니냐 (La nina)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뉴 잉글랜드 해안지역과 대서양 연안 일대 남부지역,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 등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특히, 북서부 일대의 캐스케이드 산맥 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4~12인치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산간지역에서도 눈 대신 비가 내렸다. 오하이오와 걸프만 연안 남부 지역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씨를 보였고,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 등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5~15°F 이상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



## □ 농업 현황 요약(11/20~11/26)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와 플로리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옥수수, 면화, 해바라기 등의 수확작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 로키산맥, 태평양 연안 지역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11/19~11/25)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한주가 이어졌다. 지난 9월 1일 이후 중부와 북부에서는 평년의 1/3 수준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북부와 중부 일대인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9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탈리아 일대에서는 지난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시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밀의 휴면이 시작되는 기온인 5°C 미만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 겨울밀의 휴면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전역에서는 추운 날씨가 찾아왔다. 북동부 일대의 Shangdong, Hebie, Shanxi 등에서는 겨울밀의 휴면이 시작되었다. 북동부의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5°C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남부 일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 현황 보고는 오늘부로 종료되며,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동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겨울밀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과 보리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호주에서는 1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수확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서호주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호주와 북동부 일대에서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3~6°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르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Parana 강 인근의 Buenos Aires 북부, Entre Rio, Santa Fe 등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Cordoba 동부 등에서는 이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그 밖의 지역과 La Pampa, Cordoba 남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기온이 평년보다 3°C 정도 낮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다 주 후반에는 10°C 중반까지만 오르는 등 변덕스러운 기온을 보였다. 북동부의 Chaco, Formosa 등에서는 2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8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옥수수의 파종률은 50%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대두,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동부에서부터 Tocantins, Bahia 서부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24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9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정도 낮은 수치이다. 보다 남부의 Rio Grande do Sul 북동부에서부터 Minas Gerai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96%를 기록했다. Rio Grande do Sul의 11월 23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 파종률은 각각 48%, 94%를 기록했다. Sao Paulo, Minas Gerais에서는 곳에 따라 100~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